

16세기 在地士林 江湖時調의 양상과 전개

한 창 훈*

〈국문초록〉

고려 후기 이후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士大夫라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江湖時調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미적 범주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특히, 16세기 在地 士林의 대표자인 이현보, 이황, 권호문, 장경세의 江湖時調에 나타나는 특징의 양상과 전개를 개괄적으로 살폈다.

이현보, 이황의 江湖時調를 해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개념들은 道學的 儒教 根本主義의 속성이다. 道學的 根本主義는 현실 정치에의 참여를 통해 서만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좌절과 퇴각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재충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부패한 정치 현실과 완전한 도덕적 이상', '人心과 道心', '俗世와 江湖' 등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그 바탕을 이룬다.

이에 비해 권호문과 張經世의 江湖時調는 상대적으로 政治 現實에 대한 강한 친연성과 관심을 보인다. 그 때문인지 작품에 나타나는 江湖 自然의 형상화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그들은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관념적 성격을 벗어나, 다분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江湖 自然에의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에 江湖時調의 새로운 국면은 정철에서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신희과 윤선도에 이르러 더욱 큰 차별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들의 江湖時調는 士林의 정치적 승리 이후 도학적 근본주의 이념의 도전적 변별 가치가 약화된 국면에서, 士林 출신 세력의 정치적 이합에 따라 형성된 분파들 사이의 쟁투로부터 일시적으로 실세하거나 그런 세대를 혐오하는 데서 산출되었다.

핵심어 : 在地 士林. 江湖時調. 道學的 根本主義. 관념적 성격. 현실적 측면

* 전북대

1. 서론

그동안 한국 고전시가 연구사에서 江湖詩歌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江湖詩歌의 미적 특질은 그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작자층과 작품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정밀히 고찰해야 한다. 江湖詩歌는 단순히 自然을 소재로 한 詩歌와는 구분된다. 그 구분의 첫째는 江湖詩歌에 나타나는 自然은 있는 그대로의 自然이 아니라 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묻어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작자들이 士大夫라고 불리는 역사적인 특정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역사적 전개 과정을 고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오랜 시간을 거쳐 다양한 작자와 작품이 산출된 江湖詩歌의 역사를 아무 기준 없이 제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그 효용성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江湖는 기본적으로 공간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江湖라는 공간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현실의 공간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때의 江湖는 이상형의 공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현실의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때문에 江湖詩歌의 역사적 변천을 고찰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우선적 기준은, 각 작품군들이 보여주는 江湖와 현실간의 격절성의 성격과 江湖에서 느끼는 작자의 심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주목하면서 江湖詩歌 작품군을 계열화한다면, 다소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계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¹⁾

1) 고전시가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따지는 선행 연구에서 이런 구도를 제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선행된 필자의 연구를 기본 바탕으로 하여, 16세기 在地士林의 江湖時調를 좀 더 초점화해서 살펴보려는 의도를 갖는다. 『시가교육의 가치

- 1) 14-15세기, 士大夫 江湖詩歌의 形成
- 2) 16세기, 在地 士林派의 處士의 삶과 江湖詩歌
- 3) 16-17세기, 관료 지향 士林派의 江湖詩歌
- 4) 17세기, 鄉班層의 등장과 田家詩歌의 形成

본 논문에서는 우선 2)의 작품군에 관심을 집중한다. 사대부층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의 측면으로 볼 때 16세기 중·후반은 士林의 정치적 이념적 도전의 시대였다. 특히, 이현보(1467-1555)의 <어부가>, 이황(1501-1570)의 <도산십이곡>, 권호문(1532-1587)의 <한거십팔곡>과 景幾體歌 작품인 <독락팔곡> 등에서 특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시기의 江湖詩歌 역시 그러한 역사성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후의 작자로는 이황의 학풍을 계승한 文人인 장경세(1547-1615)가 이런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의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다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여기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그간 주목이 되지 않았거나, 덜 주목되었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자와 그들의 江湖時調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2. 16세기 在地士林의 處士의 삶과 江湖時調

필자는 16세기 士林派 士大夫를, 고향을 지키며 修身에 힘쓰는 處士의 삶을 살았던 在地 士林,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현실에 실

론』, 월인, 2001, 45-122쪽. 참조.

천하고자 했던 관료 지향 士林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士林派 士大夫들의 정치·철학·문학 등이 활발히 연구되면서, 흔히 우리는 이현보-이황-권호문-장경세로 이어지는 嶺南 士林과 송순-이이-정철-신흠-윤선도로 이어지는 畿湖·湖南 士林과의 차이를 주목하는 경향을 접할 수 있다. 혹자는 정치적 지역적 기반을 중시하여 嶺南·畿湖·湖南 등의 지역적 차별성을, 혹자는 主理·主氣 등의 철학적 견해 차이를 주목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전자들은 중앙 정계의 진출을 부정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處의 생활을 통해서 이념적 순수성을 가지고 道學의 공리에 더욱 철저 했다면, 후자들은 處의 생활을 중앙 정계 진출을 위한 修身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정계 진출에 긍정적이라는 차이를 갖는다고 설명한다.²⁾

문학은 본래 작자의 사상이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성격이 짙으므로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문학 작품의 경향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견해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이라든가 철학적 견해 같은 단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³⁾ 이제 이러한 전체적 이해를 가지고 아래에서 세

2)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437-438쪽. 참조.

3) 신영명, 『16세기 江湖時調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1990 이후 『사대부 시가의 연구』, 국학자료원, 1996은 이런 차별성을 전제로 그들의 시가 문학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지역에 주목한 경우로는, 영남의 경우 조윤제의 몇몇 소논문들과 이영희, 『조선조 영남 사림과 시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1982.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의 연구』(형설출판사, 1984) 등의 연구가, 호남의 경우 정익섭, 『개교 호남가단 연구』, 민문고, 1989 : 박준규, 『호남 시단의 연구』(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등이 있다. 필자도 윤선도의 시조에 나타나는 審美性的 한 요인으로 호남의 藝鄕의 문화기반을 든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윤선도 시조의 미적 기반」,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월인, 2000)을 참고할 것.

부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1) ‘道學的 根本主義’의 生成 : 이현보(1467-1555) · 이황(1501-1570)

이현보와 이황의 시조는 현재 한국 시조사의 출발점에 있어 가장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다. 여러 문헌에서 제작 경위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즉 ‘이현보의 <어부가>는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함께 이황의 친필로 전했고, 이것이 판각까지 되었으니 그 원형을 가장 믿을 수 있으며, 그의 <歸田錄> 3수도 그의 여섯째 아들인 이숙량(1519-1592)의 自筆本이라 하니 또한 그 원작을 충분히 전사했으리라 생각되는’⁴⁾ 것이다. 더구나 주지하다시피, 이현보와 이황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끊임없는 교류 관계에 있었다. 이황이 쓴 이현보의 행장에는 그들의 이런 친밀한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이황은 이현보의 <어부가> 발문을 짓기도 하였다.

특히 이현보의 만년 생활을 동경했던 이황은 在野 隱居의 길을 일생에 거쳐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그로 대표되는 16세기 영남 사림파의 修己的 志向은 이미 16세기 전반부터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황의 숙부인 李堉와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이현보의 은둔적 영향은 결국 문학에서 내면 지향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현보와 이황의 차이점이라면, 이현보의 경우 ‘힘오스런 관료 생활을 거친 후 물러나, 자신의 비관적 정치 현실 인식과의 화해의 길은 없다고 판단하고, 유가의 전통적 처세 방법의 하나인 獨善其身の 길을 선택하였다’⁵⁾면, 이황은 처음부터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處士의 삶을 영위하면서 道學의 실천을 목적으로 삼았

4)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74쪽 참조.

5) 김홍규, 『江湖自然과 政治現實 : 孟思誠 <江湖四時歌>와 李賢輔 <漁父歌>의 정치 현실 인식』, 『욕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157쪽.

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연관을 해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지렛점은 아마도 ‘道學的 儒教 根本主義’⁶⁾의 속성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도덕적 당위와 정치 이상을 하나로 관철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자체 속에 비상한 도전적 에너지를 가진다. 道學的 根本主義는 현실 정치에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좌절과 퇴각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재충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부패한 정치 현실과 완전한 도덕적 이상’, ‘人心과 道心’, ‘俗世와 江湖’ 등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그 바탕을 이룬다. 그러한 의식의 평면에서 생각할 때, “현실 정치는 至高한 도덕적 이상에 의해 철저히 재정초되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타락한 세속을 부인하고 이와 단절된 江湖의 세계로 돌아와, 밖에서 펼치지 못한 숭고한 표준을 지키고 이에 침잠해야 한다는 논리가 선다.”⁷⁾ 이후의 작자로는 이황의 학풍을 계승한 文人인 권호문(1532-1587)·장경세(1547-1615)가 이런 모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의 이런 士林들의 모습은 주로 嶺南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이가 바로 이현보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이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이현보의 작품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시조 가운데 작자가 밝혀진 것으로, ‘최초로 陶淵明으로 대표되는 歸去來를 수용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⁸⁾ 한 것이다.

-
- 6) 이는 김홍규, 『16·17세기 江湖時調의 변모와 田家時調의 형성』, 『욕망과 형식의 詩學』(태학사, 1999)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 7) 김홍규, 『江湖自然과 政治現實 : 孟思誠 〈江湖四時歌〉와 李賢輔 〈漁父歌〉의 정치 현실 인식』, 『욕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참조.
- 8) 이형대, 『조선조 국문시가의 도연명 수용 양상과 그 역사적 성격』, 고려대학교 석사 논문, 1991, 28쪽.

[歸田錄 1, 效嘯歌]

歸去來 歸去來 ㅎ되 말 뿐이오 가 리 업스
 田園이 將蕪하니 아니 가고 엇지홀고
 草堂에 淸風 明月이 나명 들명 기다리느니.
 <*농암 2> #p 3470, 487. [李賢輔]

[歸田錄 2, 巽岩歌]

巽岩에 올라 보니 老眼이 猶明 | 로다
 人事이 變호들 山川이썸 가실가
 岩前에 某水 某丘이 어제 본 듯 ㅎ에라.
 <*농암 3> #p 6550, 928. [李賢輔]

여기서 작자는 歸去來를 외치지만 말 뿐이고 실천하지 않는 현실의 관료들을 개탄한다. 그리고 그 개탄은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당대 정치 현실을 혐오하고 부정하는 모습으로 발전한다. 그는 개혁을 기치로 한 士林派의 진보적인 노선에 동조했었으나, 막상 권력의 부침 과정에서는 피해 있었다. 자청하여 지방관이라는 한미한 外職으로 떠돌면서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것이다.⁹⁾ 이런 그의 삶의 자세는 정계에서 은퇴한 만년에 이르러서도 계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그가 가고자 하는 ‘田園’이라는 공간은 자신이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정치 현실과는 대척적으로 설정되게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곧 작자가 돌아오게 된 ‘汾江’¹⁰⁾이라는 실제적인 고향이면서, 관념적으로는 세속의 정치 현실과 격절되고 대극적 위치에 있는 자기 수양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이곳에서의 생활 경험을

9) 이의 자세한 과정은 이병휴, 「16세기 전반기의 정국과 농암 이현보」,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안동대학교, 1992)을 참고할 수 있다.

10) ‘汾江(분내)’는 이현보의 고향 앞마을 흐르던 내의 이름이다. 지금은 안동호 속에 갇혀버린 이 분내는 16세기 전반 ‘江湖歌道’의 시발점이 되며, 영남 사림의 국문시가에서 중심축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재남, 「분강가단 연구」,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170쪽 참조.

통해, 그는 기존에 전해내려 오던 <악장 어부가>를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어부 장가><어부 단가>로 찬정할 수 있었다.

[漁父短歌 1]

이 등에 시름 업스니 漁父의 生涯이로다
一葉 扁舟를 萬頃波에 띄워 두고
人世를 다 니젯거니 날 가는 줄물 안가.
<*농암 5> #p 23710, 3225. [李賢輔]

[漁父短歌 3]

靑荷에 바늘 박고 綠柳에 고기 빼여
蘆荻 花叢에 비 미야 두고
一般 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라실고.
<*농암 7> #p 29170, 4088. [李賢輔]

[漁父短歌 5]

長安을 도라 보니 北關이 千里로다
漁舟에 누워신들 니즌 스치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濟世賢이 업스라.
<*농암 9> #p 25240, 3562. [李賢輔]

여기서 작자는 자신이 겪었던 江湖 생활을 어부의 생활과 반추하면서 우리에게 보여 준다.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어부의 생활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풍요롭다. ‘人世를 다 니젯’고, 밥과 고기를 즐기는 그의 생활은 그야말로 ‘一般 淸意味’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작품 문면 곳곳에 숨어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한 혐오 의식이다. ‘漁舟에 누워 있으나, 長安과 北關을 잊지 못해 시름’하는 작자는, 그러나 곧 그 걱정을 다른 ‘濟世賢’에게 돌리고 시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처럼 이현보의 시조에는 갈등하는 작자의 모습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혐오스럽지만 만년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절연할 수 없었던 정

치 현실, 만년에 찾은 평화로운 '田園'과 '江湖'에서 심리적 평안을 찾는 작자를 보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 정치적 갈등과 그 갈등을 잊게 해주는 만년의 강호 사이의 격절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¹¹⁾

이렇게 이현보에 의하여 그 윤곽이 만들어진 道學派 士林의 江湖時調는 이후 더 강고한 모습의 處士的 志向을 보인다. 그 대표적 위치에 있는 이가 바로 이황(1501-1570)이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관료 생활 중에도 기회만 있으면 사직하고 향촌으로 돌아와 道學에 힘쓴 處士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의 문학 작품들, 특히 연시조 형태의 <도산십이곡>이 잘 짜여진 철학적 근거와 미의식을 갖추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최진원에 의해 분석된 바 있듯이, 그의 <도산십이곡>에 드러나는 '風流'의 성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醉樂的 風流'와는 구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특히 유의할 만하다.¹²⁾ 그리고 그 변별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품 문면의 독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그의 철학적 지향과 문학론, 道學에 대한 이해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陶山六曲: 言志 1]

이런돌 엇다흐며 더런돌 엇다흐료
 草野 愚生이 이리타 엇다흐료
 흐물며 泉石 養育을 고태 므슴흐료.
 <*도산 1> #p 22920, 3235. [李滉]

-
- 11) 이현보의 시조 특히 <어부가>에 대한 논의는 김홍규, 『江湖自然과 政治現實 : 孟思誠 <江湖四時歌>와 李賢輔 <漁父歌>의 정치 현실 인식』, 『육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147-158쪽. : 이형대, 『漁父 形象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 인식』,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1997, 86-103쪽의 분석이 정치하다.
- 12)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기왕의 이황 문학에 대한 연구 경향과 그 성과와 문제점은 이동환, 『퇴계문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철학』 18집(경북대학교 퇴계 연구소, 1990)에서 자세히 검토되고 있다.

[陶山六曲: 言志 2]

煙霞로 지불 삼고 風月로 버들 사마
太平 聖代에 病으로 늘거 가너
이 등에 브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도산 2〉 #p 20330, 2877. [李滉]

[陶山六曲: 言志 3]

淳風이 죽다 하니 眞實로 거즈마리
人性이 어디다 하니 眞實로 올흔 마리
天下에 許多 英才를 소겨 말숨흔가.
〈*도산 3〉 #p 17130, 2449. [李滉]

[陶山六曲: 言志 4]

幽蘭이 在谷하니 自然이 들디 도해
白雲이 在山하니 自然이 보디 도해
이 등에 彼美一人를 더욱 닛디 못흔애.
〈*도산 4〉 #p 22460, 3162. [李滉]

[陶山六曲: 言志 5]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有水 | 로다
뻬 만흔 굴머기는 오명 가명 흐거든
엇더다 皎皎白駒는 머리 只숨흔논고.
〈*도산 5〉 #p 14450, 2054. [李滉]

[陶山六曲: 言志 6]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라
四時 佳興이 사름과 혼 가지라
흐몰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아 어니 그지 이슬고.
〈*도산 6〉 #p 29990, 4224. [李滉]

言志 1에서 산천을 좋아하는 버릇이 그의 고질이 되었다고 술회하는 것도 그러한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맑고 밝은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美感을 통하여, 자연과 合一할 때 느끼는 희열을 언급하는 문

志 1-6 까지의 각 작품의 구절들은, 몸소 겪은 그의 ‘天人合一’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 증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煙霞로 지불 삼고 風月로 버들 삼아’, ‘幽蘭이 在谷’하고 ‘白雲이 在山’하며,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夜에 月滿臺’하는 곳에서 작자는, 이러한 江湖에서의 ‘四時 佳興이 사름과 혼 가지라’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특히, 言志 5에 보이는 공간은 세속적 삶의 세계로부터 격절된 江湖 혹은 山林에 해당한다. 작가는 때때로 ‘멀리’ 있는 세계를 바라보지만, 산과 물 사이에서 유유자적하며 노니는 갈매기 때처럼 세속의 풍진을 잊고 맑은 심성을 기르며 살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자연에의 외경은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의 반사적 자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황의 自然愛는 곧바로 人間愛로 통하는 것이다.¹³⁾

여기서는 우선 이현보-이황을 중심으로 하는 16세기 전·중반 江湖時調의 특징이, “江湖와 세속적 삶(정치 현실)을 단절적으로 보는 二分法的世界像 위에서, 세속적 가치와 정치 현실에 대한 거부 의식을 뚜렷이 지니고 田園的 삶을 긍정하되, 자연 현상을 즉물적 구체성보다는 조화로운 理法과 청정한 정신적 가치의 具現態로서 바라 보며, 윤리적 自矜과 긴장을 유지하여 江湖 생활의 흥취나 즐거움에 대한 지나친 물입을 적절히 자제하고, 일상적 삶의 구체성으로부터 거리를 둔 觀照的 자세”¹⁴⁾를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에 유의하면서, 후대에 이어진 구체적 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3) 이상은, 『증보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1999 : 정순목, 『퇴계의 예술 교육관』, 『퇴계의 교육철학』, 지식산업사, 1986. 참조.

14) 김홍규, 『16·17세기 江湖時調의 변모와 田家時調의 형성』, 『육망과 형식의 詩學』, 태학사, 1999, 173-174쪽.

(2) 處士의 삶의 계승과 江湖時調의 기능 : 권호문(1532-1587) ·
장경세(1547-1615)

權好文은 선조 때의 文人으로, 30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모부인이 돌아가자 대과의 뜻을 버리고 隱居하게 된다. 그는 李滉의 文集을 편찬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후학 양성에도 노력하였다. 47세 때에 벼슬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50세에 內侍敎官을 제수받았으나 역시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獨樂八曲〉을 지어서 벼슬을 사양하는 뜻을 밝혔다. 56세에 생을 마쳤으나, 그의 생애는 求道에의 정진과 詩作과 講義로 점철되는, 정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의 초기 士林派 士大夫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李滉의 門人으로, 자신의 文集인 〈松岩集〉에 〈獨樂八曲〉과 그 序文을 남기고 있다.

고인이 이르기를 ‘노래는 흔히 시름에서 나온다’라고 하였으니, 이 〈獨樂八曲〉 역시 나의 마음의 불평에서 나왔다. 또한 주문공은 말하기를 ‘뜻한 바를 노래하여 이것으로 性情을 기른다.’고 하였으니, 지당하도다! 이 말이여! 마음에 불평이 있을 때 이 노래가 나온 것이니,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뜻을 펴고 性情을 기른다. 아! 송창가의 몇 곡 노래가 어찌 風朝月夕의 動蕩하는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오.¹⁵⁾

노래는 시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獨樂八曲〉도 불평에서 나온 것이며,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내면의 뜻을 펴고 性情을 기르는 것이라 하였다. 즉 詩歌는 심성 수양의 방편임을 명확하게 언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詩歌에서 노래하는 세계는 곧 작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15) 權好文, 「獨樂八曲序」, 『松岩集』, “古人云, 歌多出於憂思, 此亦發於余心之不平, 而朱文公曰, 詠歌其所志, 以養性情, 至哉斯言, 心之不平而有是歌, 歌之暢志履養其性, 噫松窓數船之曲, 豈無少補於風朝月夕之動蕩精神乎?”.

적인 이념 즉 '道の 세계'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이상적 세계를 노래하고 그를 통하여 작자는 자신의 性情을 도야하여, 평안하지 않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이념적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獨樂'의 정체라 할 수 있다.

士林派 士大夫 문학의 단초는 麗末 鮮初의 교체기에 은둔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의 '處士적인 삶'은 道學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이념적 모습은 지방 士林들의 중앙 정계에의 대량 진출로 하여, 비로소 조선 사회에서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권호문의 연시조 <한거십팔곡>은 이런 면에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그는 <한거록>이라는 글에서,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여 '隱求道'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士大夫는 道를 실천하는 것이 본령이며, 능력과 때가 맞으면 세상에 쓰여야 하는데,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여 山林에서 청정한 삶을 지내는 것도 즐거움을 준다는 것이다.

사대부의 일신은 도가 실리는 바이니 그 몸의 나아감과 물러남을 따라 서 이 도의 나타남과 나타나지 않음이 정해진다. ... 나는 젊어서부터 과거 준비는 힘쓰지 않고, 뜻을 오로지 계산에 두어, 산을 찾고 물에 이르러 즐거워하지 않는 바가 없고, 안개에 갇히고 구름에 누워 편안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 인세의 부귀로부터 돈절하니, 실로 하늘과 땅을 통했다 할 수 있고, 만물에 자세하여 홀로 갈 수 있다.¹⁶⁾

하지만 그의 시조 <한거십팔곡>을 보면,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여 '隱求道'하는 속에서도 때때로 士大夫의 현실적 소명과 정치 현실에

16) 權好文, 「한거록」, 『松岩集』, “士之一身, 道之所載, 隨其身之出處, 占此道之顯晦. ... 余自蚤歲, 學懶科程, 志癖溪山, 尋山訪水, 無所不樂, 棲霞臥雲, 無處不安. ... 頓絕於人世富貴之中, 直可以窮天地, 細萬物而獨往”

의 참여 욕구로 인해 번민하는 작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¹⁷⁾ 특히 그의 시조는 각 작품들이 서로 대치되면서, 뚜렷이 이분화된 江湖 自然과 政治 現實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곧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閒居十八曲 1]

生平에 願하느니 다든 忠孝 畚이로다
이 두 일 말면 禽獸이나 다라리아
마음에 하고자 하여 十載 遑遑 하노라.
〈*송속 1〉 #p 15320, 2184. [權好文]

[閒居十八曲 3]

비록 못 일위두 林泉이 도하나라
無心 魚鳥는 自閒閒 하얏느니
早晚에 世事 닛고 너를 조츠려 하노라.
〈*송속 3〉 #p 13550, 1928. [權好文]

이 두 작품을 통해 간취할 수 있듯이, 작자는 '忠孝를 生의 근본으로 하는 士大夫의 삶'을 추구하였으나, 정치 현실에의 진출을 결국 '못 일 위' 내었다. 하지만 그 10년의 방황 끝에 '林泉'의 좋음을 알게 되고, '細事'를 넘어 江湖의 삶에 충실하고자 한다. 학문을 닦아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대변되는 '立身揚名'의 공부나 자연속에서 道를 추구하는 修身의 학문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뚜렷이 이분화된 江湖 自然과 政治 現實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곧 화해하는 작자의 모습은 〈한거십팔곡〉 곳곳에서 확인된다.

17) 이러한 특징은 작가론적 단위의 연구에서도 부분적이거나 주목된 바가 있다. 최선미, 『송암 권호문 시가의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 논문, 1995) : 우용순, 『권호문의 시세계』(고려대학교 석사 논문, 1983)의 관련 부분 참조.

[閒居十八曲 4]

江湖에 노자 하니 聖主를 버리려고
 聖主를 섬기자 하니 所樂에 어긋아라
 호운자 岐路에 서서 갈 디 몰라 호노라.
 <*송속 4> #p 1190, 160. [權好文]

[閒居十八曲 5]

어지개 이러그러 이 몸이 엇디홀고
 行道도 어렵고 隱處도 定티 아났다
 언제야 이 뜰 決斷호야 從我所樂 호려뇨.
 <*송속 5> #p 19830, 2799. [權好文]

[閒居十八曲 8]

出호면 致君 澤民 處호면 釣月 耕雲
 明哲 君子는 이물사 즐기느니
 호믈며 富貴危機 | 라 貧賤居를 호오리라.
 <*송속 8> #p 30080, 4234. [權好文]

[閒居十八曲 9]

靑山이 碧溪臨호고 溪上에 烟村이라
 草堂 心事를 白鷗들 제 알라
 竹窓 靜夜 月明호디 一張琴이 잇느니라.
 <*송속 9> #p 28710, 4038. [權好文]

<한거십팔곡> 4수와 5수, 8수와 9수의 내용도 때때로 士大夫의 현실적 소명과 정치 현실에의 참여 욕구로 인해 번민하는 작자의 모습을 극명히 대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處士의 삶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실패를 겪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또 본래 가지고 있었던 '所樂'에 따라 '隱求道'의 길을 걸었다. 4수에서 작자는 '江湖'와 '聖主'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5수에서는 일단 '隱求道'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도 쉬운 일이 아니라 고민하는 작자는 자신의 결단을

다짐하려 한다. 8수에 이르면, 작자는 그동안의 방황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處士의 삶을 살고자 한다. 9수는 江湖에 草堂을 짓고 고요한 밤에 거문고를 켜는 심사가 드러나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白鷗’은 江湖에서 작자와 동고동락하는 대상이지만, 자신과 완전히 혼연 일체되는 감정이입의 상태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특이하다.

이는 이황의 <도산십이곡> 전통 속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와는 정서적으로 다소 구분되는 권호문 시조의 한 특징으로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자 권호문은 政治 現實을 떠나 왔지만, 그 미련으로 江湖 自然과 완전히合一하지 못한다. 때문에 그는 그의 스승 이황이 이룩한 것처럼, 江湖 自然과 완전히合一하고, 나아가 그 속에서 理法을 찾는 求道의 자세를 온전히 형성시키지는 못하였다. 앞 절에서 살핀 이현보·이황과는 다르게 그의 작품에서 ‘孤獨’의 정서와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음은 이에 연유한다 하겠다.

권호문 이후, 이황의 충실한 계승자로 자처한 張經世(1547-1615)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준다.¹⁸⁾ 장경세의 <강호연군가>는 이황의 <도산십이곡>을 ‘效倣’한 작품이다.¹⁹⁾ 그런데 종래에는 그 ‘效倣’에만 관심을 기울여, ‘陶山’이 ‘戀君’으로 대치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못한 것 같다.

[江湖戀君歌 前六曲: 1]

瑤空에 둘 붉거늘 一張琴을 벗기 안고
欄干을 디혀 안자 古陽春을 튼온마리
엇더타 님 향훈 시름이 曲調마다 나느니.
<*사촌 1> #p 21430, 3029. [張經世]

18) 그에 대한 개별 연구는 별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임기중, 「장경세론」, 『續·古時調作家論』(백산출판사, 1990)이 있어, 세부적인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

19) 『張沙邨遺集』 권2, “效退溪先生陶山六曲, 作江湖戀君歌”

[江湖戀君歌 前六曲: 2]

紅塵의 꿈 씨연디 二十年이 어제로다
 綠楊 芳草에 절로 노힌 므리 되여
 時時히 고개를 드러 님자 그려 우노라.
 <*사춘 2> #p 32690, 4641. [張經世]

[江湖戀君歌 前六曲: 3]

시저리 하 슈샹하이 므음을 들 되 업다
 喬木도 네 了고 世臣도 了자시되
 議論이 여긔 저긔 하이 그를 몰나 호노라.
 <*사춘 3> #p 17750, 2536. [張經世]

[江湖戀君歌 前六曲: 4]

옛그제 꿈 가운데 廣寒殿의 올라 가이
 님이 날 보시고 了장 반겨 말호시데
 머근 므움 다 숲노라 하이 날 새는 줄 모르로다.
 <*사춘 4> #p 19990, 2842. [張經世]

이들 작품들에서 작자의 江湖 自然에서의 生活을 짐작하기는 어렵다. 작자는 임금으로 생각되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강한 나머지, 그와 격절되어 있는 江湖 自然에 위치한 자신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리운 '님'과 떨어져 있으니, 그의 곁에는 항상 시름과 근심이 따라 다닌다. 이쯤 되면, 그의 <강호연군가>는 이황의 <도산십이곡>과 비교하여 볼 때, 그 형식만을 차용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다음에 인용하는 마지막 두 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작자는 江湖 自然에서의 삶에 대한 志向을 보인다. 그러나 그 삶이라는 것도 '得君行道的 君子의 뜻'을 '時節'의 탓으로 이루지 못한 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앞 절에서 살핀 이현보·이황과는 달리, 강한 政治 現實 志向性을 역으로 읽을 수 있다.

[江湖戀君歌 後六曲: 5]

丈夫의 몸이 되어 飢寒을 돌리 것가
一山 風月애 즐거움이 ㄹ이 업다
너 마다 浮雲 富貴을 쏘을 줄리 이시랴.
〈*사춘 11〉 #p 25070, 3540. [張經世]

[江湖戀君歌 後六曲: 6]

得君行道는 君子의 뜻이로되
時節곳 어기면 考槃을 즐겨호니
疏淡호 松風 山月이사 나 뿐인가 호노라.
〈*사춘 12〉 #p 9320, 1347. [張經世]

이처럼, 권호문과 張經世의 江湖時調는 전체적으로는 이황의 〈도산 십이곡〉 전통의 자장 속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政治 現實에 대한 강한 친연성과 관심을 보인다. 그 때문인지 작품에 나타나는 江湖 自然의 형상화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그들은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관념적 성격을 벗어나, 다분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江湖 自然에의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몸담고 있는 江湖는, 관료 지향 士林派의 江湖詩歌가 보여주는, 현실 정치의 혼탁함에서 벗어나 江湖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심미적 충족·해방과 드높은 興趣의 공간'이라는 의미와도 일정 정도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그들의 時調에 형상화된 江湖는, 政治 現實과 江湖 自然이라는 격절의 공간 사이에서 원래의 志向과는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공간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때문에 그들의 江湖時調는, 이황의 〈도산 십이곡〉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道體·理致의 發現'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격절되어 있는 政治 現實에 대한 그리움과 江湖 自然 속에서 자신들의 시름과 외로움을 달래주는 '獨樂'의 방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고려 후기 이후 조선조를 거치는 동안, 士大夫라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江湖時調는, 문학사에서 중요한 미적 범주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최근에는 江湖時調의 주요 담당층인 士大夫들의 정치 의식의 변모와 미적 공간 의식의 변모 등에 주목하여, 時調에 구현된 미의식을 구체적인 역적 변천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따지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중에서 특히, 16세기 在地 士林의 대표자인 이현보, 이황, 권호문, 장경세의 江湖時調에 나타나는 특징의 양상과 전개를 개괄적으로 살폈다.

이현보, 이황의 江湖時調를 해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지렛점은 아마도 道學的 儒教 根本主義의 속성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도덕적 당위와 정치 이상을 하나로 관철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 자체 속에 비상한 도전적 에너지를 가진다. 道學的 根本主義는 현실 정치에의 참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로부터의 좌절과 퇴각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이념적으로 재충전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부패한 정치 현실과 완전한 도덕적 이상', '人心과 道心', '俗世와 江湖' 등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그 바탕을 이룬다.

권호문과 張經世의 江湖時調는 전체적으로는 이현보, 이황 전통의 자장 속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政治 現實에 대한 강한 친연성과 관심을 보인다. 그 때문인지 작품에 나타나는 江湖 自然의 형상화는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그들은 시적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관념적 성격을 벗어나, 다분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江湖 自然에의 친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후에 江湖詩歌의 새로운 국면은 정철(1536-1593)의 歌辭와 時調에

서 좀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신흘(1566-1628)과 윤선도(1587-1671)의 時調 作品에 이르러 더욱 큰 차별성을 드러내게 된다. 앞 시기 송순(1493-1582)의 歌辭 〈면양정가〉나 이이(1536-1584)의 時調 〈고산구곡가〉 등에 의해 예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들의 江湖詩歌는 士林의 정치적 승리 이후 도학적 근본주의 이념의 도전적 변별 가치가 약화된 국면에서, 士林 출신 세력의 정치적 이합에 따라 형성된 분파들 사이의 쟁투로부터 일시적으로 실세하거나 그런 세대를 혐오하는 데서 산출되었다. 때문에 이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江湖는 앞에서 본 도학적 이념과 강호 취향을 상당 부분 계승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국면의 도래를 부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논문에 이어서 수행해야 할 후속 연구 주제가 된다.

〈참고문헌〉

- 김학성, 『한국 고시가의 거시적 탐구』, 집문당, 1997.
 김홍규, 『육망과 형식의 시학』, 태학사, 1999.
 심재완, 『시조의 문헌적 연구』, 세종문화사, 1972.
 이병휴 외, 『농암 이현보의 문학과 사상』, 안동대학교, 1992.
 이상은, 『증보 퇴계의 생애와 학문』, 예문서원, 1999.
 임기중 외, 『속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90.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한창훈,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월인, 2000.
 신영명, 「16세기 강호시조의 연구」, 고려대 박사 논문, 1990.
 우용순, 「권호문의 시세계」, 고려대 석사 논문, 1983.
 이형대, 「어부 형상의 시가사적 전개와 세계 인식」, 고려대 박사 논문, 1997.
 이형대, 「조선조 국문시가의 도연명 수용 양상과 그 역사적 성격」, 고려대 석사 논문, 1991.
 최선미, 「송암 권호문 시가의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95.

<Abstract>

The aspect and unfolding of “Jejisarim’s Kangho Shijo” in
the 16th century

Han Chang-hun

Studying on the history of Korean ancient poetry, we come in contact with a series of verses which “Jejisarim’s Kangho Shijo”. In the 16th century are the representative works among them. Sarim were involved in the domestic discords so that they brought about severe party strifes after all. “Jejisarim’s Kangho Shijo” profoundly dealt with the various problems concerning nature and human beings.

Lee, Hyunbo and Lee, Whang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philosophical attitudes of Confucianism. After this, Kyun, Homun and Jang, Kyungse can be largely summarized as the dual theory of reason and spirit. From the standpoint of natural principles, the epistemology of Confucianism, the theory of reason has characterized by ideality and reality. It can be said that the problem of harmonizing and uniting nature with human beings was solved in the unity of space and man.

“Jejisarim’s Kangho Shijo” in the 16th century prominently express not only the courses of character cultivation but also the pride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We can say that “Jejisarim’s Kangho Shijo” in the 16th century are divided into both types of the conservative idealism and the reformative realism in the

political status and that such shijos can be separated into types
ideality and reality in the philosophical context.

Keywords : Jejisarim, Kangho Shijo, the epistemology of Confucianism,
nature and human beings, ideality and reality